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3년 여성의 노동 및 임금 현황

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 고용률은 54.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한편, 5세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M자형 곡선의 최저점이 40~44세로 이동함.
-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감소세로 2023년 1,349천명임. 단, 40~49세는 590천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함.
- (종사상지위 및 근로형태별) 2023년 여성임금근로자는 9,976명으로 1963년 이래 역대 최대규모임. 상용근로자 역시 6,853천명으로 최대규모이나 여성비율은 42.4%로 절반에 못 미침. 2023년 8월 기준여성 임금근로자의 45.5%는 비정규직근로자이며, 4,565천명임.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2%이며, 정규직에서 여성 비율은 39.5%임.
- (성별직종분리) 던컨지수를 통하여 성별직종분리수준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직종분리 정도가 높아지고,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에 이르러 직종분리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임금격차) 2023년 8월 기준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4,822원으로 남성대비 73.7% 수준임. 세부적으로는 정규직(75.4%), 상용근로자(74.8%), 전일제근로자(76.6%)에서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저임금근로자) 24세 이하 및 65세 이상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노동참여 시 근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성별직종분리 완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1. 여성 노동 참여 현황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는 감소함.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 고용률은 54.1%로 전년대비 각각 1.0%p, 1.2%p 상승함. 남성과의 차이는 각각 17.7%p, 17.2%p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격차가 큼.
 -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2023년 여성의 실업률은 2.8%이고, 고용보조지표1,2,3은 각각 5.5%, 6.7%, 9.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우, 기혼은 미혼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낮게 나타남. 반면,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면, 미혼이 기혼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성/혼인상태별 고용동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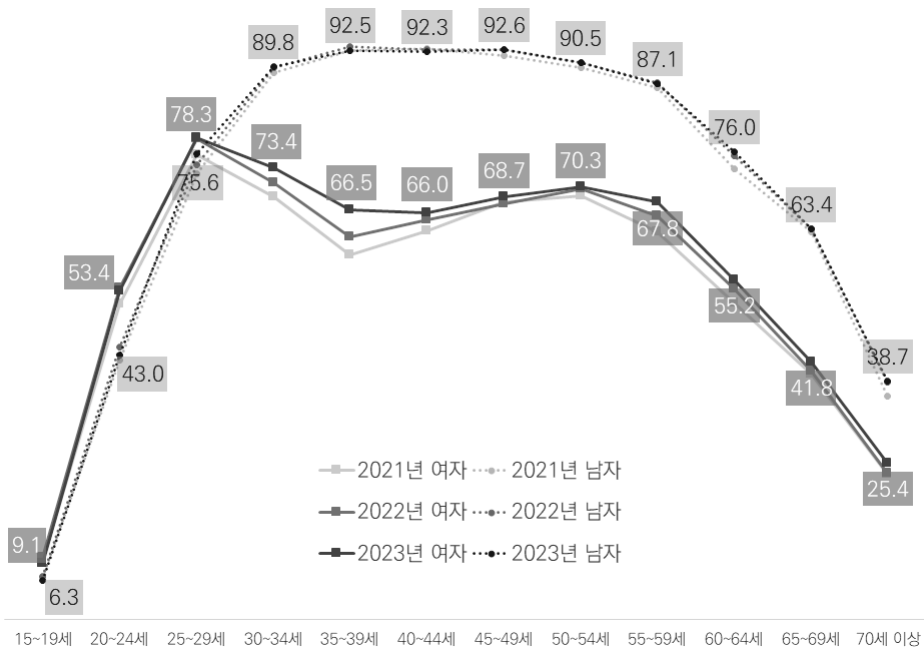
(단위: %, %p)

고용동향지표	혼인상태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자	남자	차이	여자	남자	차이	여자	남자	차이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53.3	72.6	19.3	54.6	73.5	18.9	55.6	73.3	17.7
	미혼	57.0	59.9	2.9	59.3	61.6	2.3	59.8	61.9	2.1
	기혼	52.0	79.2	27.2	53.0	79.7	26.7	54.2	79.2	25.0
고용률	전체	51.2	70.0	18.8	52.9	71.5	18.6	54.1	71.3	17.2
	미혼	53.4	55.8	2.4	56.0	58.4	2.4	57.2	58.8	1.6
	기혼	50.5	77.4	26.9	51.9	78.3	26.4	53.1	77.8	24.7
실업률	전체	3.8	3.6	-0.2	3.1	2.7	-0.4	2.8	2.6	-0.2
	미혼	6.4	6.9	0.5	5.6	5.2	-0.4	4.5	4.9	0.4
	기혼	2.8	2.3	-0.5	2.1	1.7	-0.4	2.1	1.7	-0.4
고용보조지표1	전체	7.9	7.1	-0.8	6.2	5.4	-0.8	5.5	5.0	-0.5
	미혼	10.7	10.6	-0.1	9.1	7.9	-1.2	7.9	7.6	-0.3
	기혼	6.9	5.7	-1.2	5.1	4.5	-0.6	4.6	4.0	-0.6
고용보조지표2	전체	10.2	9.3	-0.9	8.4	7.5	-0.9	6.7	6.5	-0.2
	미혼	16.9	17.4	0.5	14.0	14.2	0.2	10.9	12.1	1.2
	기혼	7.6	5.9	-1.7	6.2	4.7	-1.5	5.2	4.1	-1.1
고용보조지표3	전체	14.1	12.6	-1.5	11.3	10.1	-1.2	9.4	8.8	-0.6
	미혼	20.8	20.8	0.0	17.2	16.6	-0.6	14.0	14.5	0.5
	기혼	11.5	9.2	-2.3	9.0	7.3	-1.7	7.6	6.3	-1.3

주 : 차이: 남성수치에서 여성수치를 제한 값.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각 연도,
(https://gsis.kwdi.re.kr/statHtm1/statHtm1.do?orgId=338&tblId=DT_101004_M2015003 2024. 1. 23 인출)

□ 경력단절의 상징인 M자형 곡선은 완만해지고 있음.

- 5세 연령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35~39세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상승하였음.
- 다만, M자형 곡선의 최저점이 2021년에는 35~39세에서 나타났다면 2023년에는 40~44세로 늦어짐에 따라 만혼화 및 고령출산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각 연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01004_M2015002 2024. 1. 23 인출)

[그림 1] 성/5세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23년)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추이를 보이며, 특히, 활동상태가 육아인 경우는 2년 연속 10% 이상 감소함.

- (육아, 가사) 2023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가 육아인 여성은 840천명으로 전년대비 14.6% 감소하였음. 동기간 남성은 16천명으로 규모는 적지만 33.3% 증가하였음. 활동상태가 가사인 경우, 여성은 5,761천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임. 남성은 203천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였음.
-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외) 육아 및 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규모를 보임.

〈표 2〉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활동상태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자	남자	차이	여자	남자	차이	여자	남자	차이
계	10,696	6,074	-4,622	10,442	5,897	-4,545	10,228	5,976	-4,252
육아	1,107	13	-1,094	984	12	-972	840	16	-824
가사	5,836	181	-5,655	5,778	187	-5,591	5,761	203	-5,558
통학	1,668	1,784	116	1,598	1,719	121	1,589	1,739	150
정규교육기관통학	1,530	1,639	109	1,459	1,595	136	1,464	1,614	150
입시학원통학	23	27	4	30	23	-7	28	34	6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A)	115	118	3	108	102	-6	97	91	-6
연로	1,036	1,352	316	1,116	1,393	277	1,067	1,410	343
심신장애	150	297	147	140	305	165	150	324	174
그외	898	2,447	1,549	827	2,281	1,454	822	2,284	1,462
취업준비(B)	259	349	90	232	321	89	195	293	98
진학준비	39	58	19	41	50	9	53	47	-6
군입대대기	-	57	57	0	48	48	-	42	42
쉬었음	516	1,882	1,366	492	1,785	1,293	514	1,837	1,323
기타 등	85	101	16	62	78	16	60	66	6
※ 취업준비(A+B)	375	467	92	340	423	83	292	384	92

주 : 차이: 남성수치에서 여성수치를 제한 값.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A7145S 2024. 1. 23 인출)

□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23년 총 1,349천명으로 15~54세 기혼 여성 중 17.0%에 해당함. 추세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5~29세는 2015년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기혼여성, 미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이 동시에 반등해 증가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증가함.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짧은 경력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예방 정책이 필요함.
- 30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인 반면, 40대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임. 이전에는 만혼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력단절 현상이 40대에서 증가하는 양상이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임.
- 50대에서는 2022년에 전년대비 0.6%p가량 상승하여 7.2%를 보인 후 2023년에 0.1%p 감소하여 7.1%를 보임.
- 돌봄의 대상이 미취학자녀, 초중고자녀, 연장자에 따라서 정책환경이 상이하므로 경력단절의 원인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3〉 경력단절 여성 규모 및 비율

(단위: 천명, %)

연령대별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5 - 54세)	기혼여성(F)	9,561	9,376	9,159	9,005	8,844	8,578	8,323	8,103	7,943
	미취업여성	3,863	3,727	3,574	3,457	3,366	3,420	3,240	3,027	2,837
	경력단절여성(B)	2,073	1,924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1,349
	경력단절여성 비율(B/F)	21.7	20.5	20.0	20.5	19.2	17.6	17.4	17.2	17.0
15 - 29세	기혼여성(F)	506	482	458	447	419	354	311	266	294
	미취업여성	275	258	235	227	209	185	154	115	121
	경력단절여성(B)	177	161	144	139	118	97	75	57	64
	경력단절여성 비율(B/F)	35.0	33.4	31.4	31.1	28.2	27.4	24.1	21.4	21.8
30 - 39세	기혼여성(F)	2,909	2,848	2,753	2,690	2,601	2,448	2,298	2,161	2,072
	미취업여성	1,465	1,391	1,293	1,207	1,149	1,101	1,048	952	836
	경력단절여성(B)	1,091	1,014	933	886	806	695	655	600	544
	경력단절여성 비율(B/F)	37.5	35.6	33.9	32.9	31.0	28.4	28.5	27.8	26.3
40 - 49세	기혼여성(F)	4,060	4,017	3,939	3,878	3,776	3,708	3,621	3,559	3,475
	미취업여성	1,413	1,390	1,380	1,373	1,349	1,393	1,352	1,302	1,227
	경력단절여성(B)	630	603	606	660	634	580	579	588	590
	경력단절여성 비율(B/F)	15.5	15.0	15.4	17.0	16.8	15.6	16.0	16.5	17.0
50 - 54세	기혼여성(F)	2,087	2,029	2,009	1,991	2,048	2,068	2,092	2,116	2,103
	미취업여성	711	688	666	650	659	741	686	658	652
	경력단절여성(B)	176	146	148	161	142	134	138	152	150
	경력단절여성 비율(B/F)	8.4	7.2	7.4	8.1	6.9	6.5	6.6	7.2	7.1

주 : 경력단절 여성이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상반기(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H06S, 2024. 1. 23 인출)

2. 여성 취업자 현황

□ 여성취업자 규모 및 여성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 여성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율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상용근로자는 규모와 비율이 2021년부터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의 규모와 비율은 동기간 꾸준히 감소하였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비율은 2022년에 전년대비 감소 후 2023년에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율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고용주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2022년에 전년대비 증가 후 2023년에 감소하였음. 자영업자의 규모와 비율은 2021년부터 증가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는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비율은 2년 연속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장 지위별 여성 취업자

(단위: 천명, %)

종사장지위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취업자 전체		11,725	43.0	12,161	43.3	12,464	43.9
비임금 근로자	전체	2,413	37.0	2,467	37.4	2,488	37.8
	고용주	342	26.2	387	28.4	394	27.7
	자영업자	1,222	29.1	1,272	29.8	1,317	30.9
	무급가족종사자	850	84.4	807	84.5	777	86.4
임금 근로자	전체	9,312	44.9	9,694	45.1	9,976	45.7
	상용근로자	6,092	40.9	6,523	41.6	6,853	42.4
	임시근로자	2,856	61.6	2,848	60.9	2,803	60.7
	일용근로자	363	29.5	323	28.5	320	30.7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A7028S, 2024. 1. 23 인출)

□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2023년 4,565천명으로 여성임금근로자의 4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남성 29.8%의 1.5배에 달함.

- (정규직) 2023년 여성 정규직의 규모는 5,462천명으로 정규직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5%로, 규모와 비율은 증가추세이나 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침.
- (비정규직) 2023년 비정규직의 규모는 4,565천명으로 비정규직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2%로, 규모는 증가하는 한편, 여성비율은 2022년 8월에 전년대비 0.5%p 감소하고, 2023년 8월에 전년대비 1.0%p 증가하였음. 한시적 일자리의 규모는 2,900천명대를 유지하는 한편, 여성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시간제 일자리의 규모는 2023년 8월에 2,731천명으로 전년대비 169천명 증가하면서, 한시적 일자리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70.5%로 1.0%p 증가하였음. 비전형 일자리의 규모는 감소추이를 보이는 한편 여성비율은 증가하였음.

〈표 5〉 근로형태별 여성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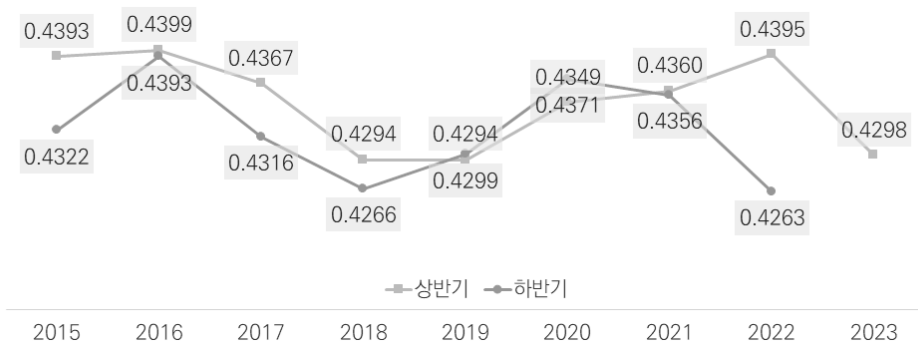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근로형태별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전체	임금 근로자	9,476	45.1	9,788	45.1	10,027	45.7
	정규직	4,985	38.6	5,285	39.0	5,462	39.5
	비정규직	4,491	55.7	4,503	55.2	4,565	56.2
	한시적	2,938	56.8	2,980	55.7	2,910	55.3
	시간제	2,502	71.2	2,562	69.5	2,731	70.5
	비전형	936	41.1	922	43.3	866	44.3
	비정규직비율	47.4	-	46.0	-	45.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 2024. 1. 23 인출)

□ 던컨지수¹⁾를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 42.98%로 회복하는 양상임.

- (연도별) 각 연도별 상반기 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던컨지수가 낮아 지는 한편, 2020년부터 상승추이를 보인 후, 2022년 상반기에 0.439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2023년 상반기에 0.4298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상반기 혹은 팬데믹 시기와 같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불황이었던 때에 성별직종분리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반기 자료에서 중분류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5, 2024. 1. 23 인출)

[그림 2] 던컨지수

□ 산업별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여성 취업자 규모가 2,348천명으로 가장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2.2%로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8.7%)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비율이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1년 이후 여성취업자 규모가 2023년 1,384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 비율은 감소하여 60.3%임.
-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여성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산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대비 규모가 1만여명 감소하여 1,266천명의 여성이 종사하였으며, 여성비율역시 전년대비 0.3%p 감소하여 66.8%로 나타남.

1) Duncan지수는 성별직종분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특정 t시점에서 성별직단별로 개별직종 j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직종에 따른 성별차이를 합산하고 이를 2로 나누어 산출한다.(사명철, 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p10.) 이는 여성과 남성의 직종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지니며, 1에 가까울수록 성별분리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각 반기별자료에서 직종분류 중 중분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S_t = \frac{1}{2} \sum_j \left| \frac{M_{j,t}}{M_t} - \frac{F_{j,t}}{F_t} \right|$$

- (제조업) 제조업은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2023년 여성은 1,291천명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산업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계	11,725	43.0	12,161	43.3	12,464	43.9
A 농업, 임업 및 어업	562	38.5	594	38.9	592	39.1
B 광업	2	16.7	1	11.1	1	12.5
C 제조업	1,257	28.8	1,290	28.6	1,291	28.9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	21.1	16	20.0	17	19.1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0	17.8	27	17.5	23	15.6
F 건설업	215	10.3	236	11.1	257	12.2
G 도매 및 소매업	1,540	45.9	1,545	46.6	1,584	48.4
H 운수 및 창고업	198	12.5	202	12.2	187	11.4
I 숙박 및 음식점업	1,284	61.2	1,333	61.1	1,384	60.3
J 정보통신업	283	31.4	325	33.1	349	33.7
K 금융 및 보험업	445	55.6	429	55.4	434	55.5
L 부동산업	203	38.2	213	38.6	216	40.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0	36.1	482	37.4	504	37.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93	42.4	606	42.6	595	41.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9	41.9	516	42.5	544	43.9
P 교육 서비스업	1,231	66.9	1,276	67.1	1,266	66.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79	82.0	2,229	82.1	2,348	82.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7	48.6	233	48.3	255	49.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4	48.8	528	47.2	539	47.7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4	96.6	78	97.5	76	98.7
U 국제 및 외국기관	4	26.7	2	12.5	4	2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A7E26S, 2024. 1. 23 인출)

3. 여성 근로자 임금수준 및 임금성비

- 2023년 여성 시간당 평균 임금은 14,822원으로, 이는 남성의 73.7% 수준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남녀 임금 격차도 감소하는 추세임. 남녀 임금 격차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함.
- (정규직여부별) 여성 정규직은 16,660원, 비정규직은 12,624원으로 정규직(75.4%)에서 비정규직(81.6%)에 비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여성 상용근로자는 16,415원, 임시근로자는 11,451원, 일용근로자는 10,919원으로 상용근로자(74.8%)에서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일용근로자(78.9%), 임시근로자(85.6%)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전일제여부별) 여성 전일제근로자는 15,914원, 시간제근로자는 11,907원으로, 전일제근로자(76.6%)에서 시간제근로자(84.8%)에 비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표 7〉 근로조건별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 및 임금 성비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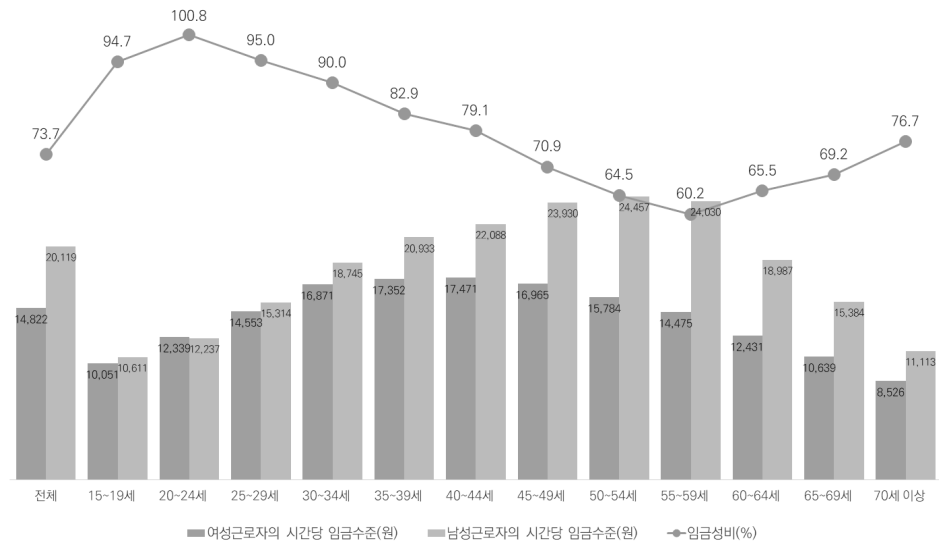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	
		여성	임금성비	여성	임금성비	여성	임금성비
전체		13,218	72.0	14,012	72.6	14,822	73.7
정규직 여부	정규직	15,142	74.2	15,819	74.1	16,660	75.4
	비정규직	11,082	80.6	11,890	81.1	12,624	81.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983	73.9	15,595	73.5	16,415	74.8
	임시근로자	10,256	85.4	10,925	85.2	11,451	85.6
	일용근로자	8,076	65.0	8,872	67.3	10,919	78.9
전일제 여부	전일제	14,184	74.7	15,024	75.3	15,914	76.6
	시간제	10,526	89.9	11,155	86.1	11,907	84.8

주 : 시간당임금 = $\frac{(\text{월평균임금})}{(\text{주평균근로시간}) \div 7 \times 365 \div 12}$, 임금성비 =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text{남성시간당임금})}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 연령별 여성 근로자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40~44세에서 17,471원으로 가장 높은 시간당 임금을 보이는 한편, 이때의 임금성비는 79.1%임. 한편, 남성은 50~54세에서 24,457원으로 가장 높은 시간당 임금수준을 보여 노동시장에서 더 늦은 나이까지 더 높은 임금을 받음.

- (시간당 임금수준) 40~44세까지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오르는 한편, 45~49세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대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시간당 임금 성비) 한편 임금성비는 20~24세에서 100.8로 완전평등을 이루지만 이후 55~59세 6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60~64세에서 반등하여 다시 증가하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
- (시간당 임금 성비 추이) 시간당 임금성비의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4세까지는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55~59세 이후로는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임.



주 : 시간당임금 = $\frac{(\text{월평균임금})}{(\text{주평균근로시간}) \div 7 \times 365 \div 12}$, 임금성비 =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text{남성시간당임금})}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그림 3] 성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임금성비(2023년 8월)

<표 8> 연령별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 및 임금 성비

(단위: 원, %)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	
	여성	임금성비	여성	임금성비	여성	임금성비
전체	13,218	72.0	14,012	72.6	14,822	73.7
15~19세	8,402	82.3	9,489	92.9	10,051	94.7
20~24세	10,562	94.1	11,713	100.5	12,339	100.8
25~29세	13,430	96.0	14,288	97.7	14,553	95.0
30~34세	15,117	88.2	15,794	87.8	16,871	90.0
35~39세	15,642	81.4	16,164	80.5	17,352	82.9
40~44세	15,264	73.2	16,680	77.0	17,471	79.1
45~49세	15,120	67.8	15,853	67.3	16,965	70.9
50~54세	13,536	60.3	14,520	60.2	15,784	64.5
55~59세	13,280	64.6	13,701	63.5	14,475	60.2
60~64세	10,612	66.9	11,487	65.3	12,431	65.5
65~69세	9,396	73.9	10,032	71.9	10,639	69.2
70세 이상	7,845	86.6	8,187	79.5	8,526	76.7

주 : 시간당임금 = $\frac{(\text{월평균임금})}{(\text{주평균근로시간}) \div 7 \times 365 \div 12}$, 임금성비 =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text{남성시간당임금})}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 산업별 여성 근로자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거 포진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 격차가 적으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이 가장 많이 일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23년 13,672원이며, 임금 성비는 82.2%로 남녀 임금 격차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임금 수준이 다른 산업보다 낮음.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여성 시간당 평균 임금은 각 18,607원으로 높은 편에 속하나, 임금 성비는 67.3%로 산업별 임금성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표 9〉 산업별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 및 임금 성비

(단위: 원, %)

산업별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	
	여성	임금성비	여성	임금성비	여성	임금성비
전체	13,218	72.0	14,012	72.6	14,822	73.7
A 농업, 임업 및 어업	7,079	54.8	9,199	69.0	9,835	68.6
B 광업	14,839	104.7	23,014	128.3	28,422	150.8
C 제조업	13,815	69.2	14,275	68.1	15,057	68.2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4,698	51.8	18,041	61.0	19,016	67.8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271	77.5	16,667	96.2	17,084	91.3
F 건설업	15,232	91.9	15,187	84.9	16,680	90.2
G 도매 및 소매업	11,992	73.4	12,960	76.0	13,954	76.9
H 운수 및 창고업	13,137	81.4	14,351	84.5	16,413	94.1
I 숙박 및 음식점업	9,512	84.1	10,411	86.0	11,072	84.4
J 정보통신업	15,511	65.7	17,143	71.5	18,648	74.5
K 금융 및 보험업	18,238	68.0	19,293	68.0	20,099	69.8
L 부동산업	12,997	89.5	12,823	78.7	13,250	79.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550	67.0	18,222	68.6	18,607	6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210	80.5	11,913	81.2	13,028	83.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609	67.1	14,831	73.7	15,497	74.6
P 교육 서비스업	16,583	76.5	17,127	75.6	18,034	79.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159	78.9	12,854	81.4	13,672	82.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195	96.8	12,771	86.2	13,658	82.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471	82.9	12,096	83.8	12,049	80.4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566	99.4	9,287	80.7	9,112	132.0
U 국제 및 외국기관	13,743	65.2	-	-	15,764	75.9

주 : 시간당임금 = $\frac{(\text{월평균임금})}{(\text{주평균근로시간}) \div 7 \times 365 \div 12}$, 임금성비 =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text{남성시간당임금})}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 2023년 여성 저임금근로자 규모는 1,907천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19.0%임. 이는 전년대비 323천명, 3.8%p 감소한 것임.

- (연령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75.1%), 15~19세(64.3%), 65~69세(43.3%), 20~24세(31.3%) 순으로 주로 고령층 및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연도별 추이) 전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그 규모가 34천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0〉 성/연령별 저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율

(단위: 천명, %)

연령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전체	2,098	22.1	1,277	11.1	2,230	22.8	1,409	11.8	1,907	19.0	1,172	9.8
15~19세	68	66.3	30	41.9	72	64.7	38	52.7	64	64.3	39	53.4
20~24세	258	34.2	134	28.9	237	33.4	183	35.6	216	31.3	152	31.3
25~29세	119	10.4	128	11.0	126	10.8	157	13.0	91	8.0	129	10.6
30~34세	86	9.5	68	5.3	87	8.9	64	4.8	68	6.5	61	4.4
35~39세	85	10.1	68	4.9	102	11.9	57	4.4	60	7.0	41	3.3
40~44세	118	11.9	47	3.2	128	12.5	53	3.6	112	10.6	45	3.0
45~49세	136	12.5	74	5.2	142	13.4	62	4.4	111	10.5	54	4.0
50~54세	207	18.3	82	5.7	234	19.5	85	5.7	166	13.8	68	4.6
55~59세	198	21.4	108	9.2	205	21.1	111	9.2	152	14.9	79	6.5
60~64세	224	33.0	137	16.6	257	35.0	159	17.7	210	26.3	110	11.7
65~69세	180	48.2	132	29.7	209	51.1	148	28.9	193	43.3	122	23.8
70세 이상	420	79.4	268	65.0	431	76.7	291	62.7	465	75.1	272	54.8

주 :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11 2024. 1. 23 인출)

□ 노동참여시 근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와 노동시장의 성별직종분리 완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함.